

안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우편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 특송을 이용한 우편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외국계 특송화물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삼아 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고객의 우편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함으로써 동양 최대 규모의 우편물류센터라는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

취재 | 임재근 기자





▶ 이성식 지원팀장(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종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종사원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한데 안전의 기본은 바로 이런 의식 함양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감으로써 안전의식을 확고히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히태수 안전관리 책임자

최근 무리한 작업자세나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작업장에도 일부 공정에서는 무리한 작업자세나 중량물 취급작업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종사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방법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안전을 기본으로 작업능률을 지향하는 모범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식 안전관리자

담당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종사원이 얼마만큼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꼼꼼히 체크해 나갈 것이며, 또한 현장의 종사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방법과 시설 개선,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IT 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국제 특송을 이용한 우편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국으로 발송되는 국제우편 교역량도 1988년 연간 7,611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24,338톤으로 무려 319%가 증가되었으며, 금년에도 중국 등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수출입우편물은 3%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국제 특송우편물의 특성상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 목동에 소재했던 서울국제우체국을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내로 이전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명칭을 변경, 국제항공우편물 교환·통관화부 및 행정조사 등의 업무를 2007년 10월부터 시작하였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반·출입되는 우편물의 처리를 전담하는 전초기지로 최첨단의 정보처리 시스템이 접목된 우편물 자동분류 시설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WMS 개념이 도입된 3차 물류창고를 건립하는 등 동북아시아 국제우편 물류의 허브 기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힘찬 모부와 세계 제일의 국제우편물류센터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첨단 물류처리 기계시설에 맞는 방호장치

이곳 국제우편물류센터는 2007년 9월에 완공된 우리나라 해외우편물 처리를 전담하는 전초기지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반·출입되는 우편물의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최첨단의 정보처리 시스템이 접목된 우편물 자동분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식 기계장비와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은 설계에서부터 종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방호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우편물이 입고된 차량에서 하역될 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위치에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종사원의 손이 벨트에 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손끼임 방지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정에서 우편물은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혹시 이동 중 떨어지거나 회전하고 있는 벨트에 종사원의 옷이나 손이 말려들어 가게 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가드와 덮개 및 종사원들의 이동을 돕는 계단식 통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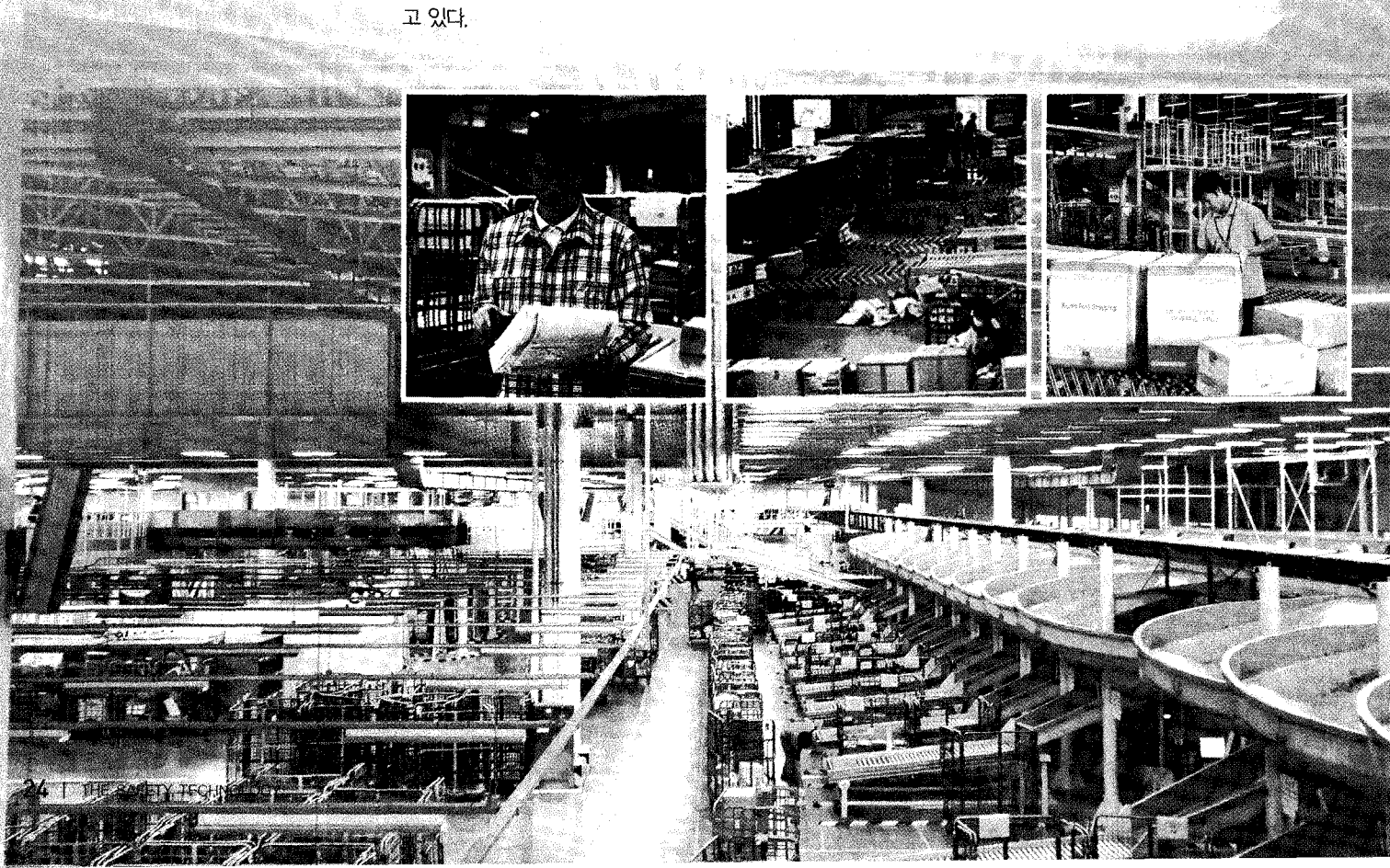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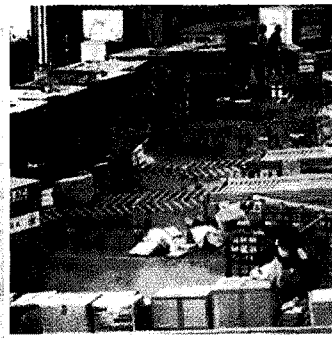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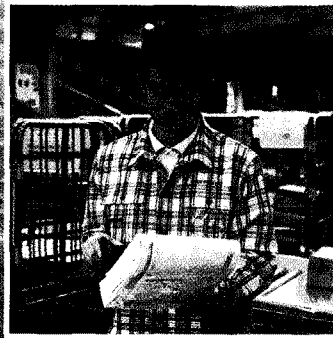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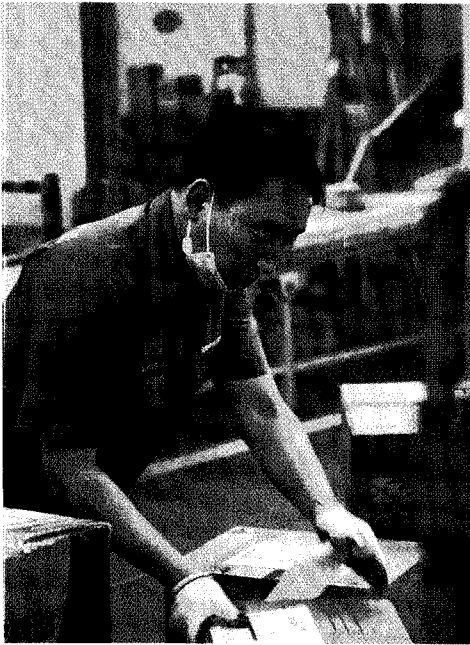
종사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매주 열리는 각 팀의 관리자 회의에서는 회의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 교육이 이루어진다. 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작업 현장에서 종사원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매주 회의에 앞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수시로 관리자들 간 작업장에 대한 위험요소와 더욱 안전한 작업현장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작업공정 등을 토의하고 개선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넣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편 종사원에게는 매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별도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종사원의 관심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전교육은 바로 안전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공정에서 위험요소 발굴을 위한 체계적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을 전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속한 관리자들은 작업현장의 모든 공정을 수시로 꼼꼼히 점검하여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핀다. 각 공정에서 인적, 물적, 관리적, 기계적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체계적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해 내고 있다. 또한 수시로 종사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 그러한 위험이 발견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대책 마련과 개선까지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위험요인 발굴에서 개선까지의 과정을 거듭해 나감으로써 작은 위험이 중대재해나 대형재해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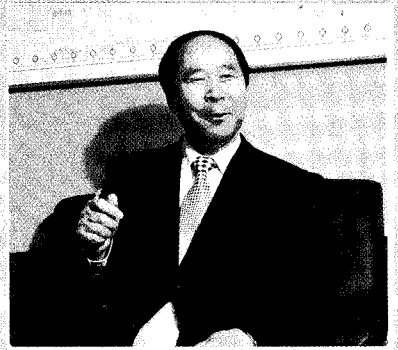


중량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예방

아무리 최첨단의 물류처리 기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에는 직접 수작업으로 우편물을 운반하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간혹 30kg이 넘는 우편물도 수작업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런 중량물 취급 작업은 허리나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작업전에는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량물 들기 작업시 올바른 작업 자세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안전은 과거에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다. 기업들은 품질제일주의를 앞세워 생산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는 경제개발을 목표로 안전에 대한 규제를 풀어왔다. 하지만 이제 안전은 기업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당연한 현실이다. 종사원의 안전이 우선 확보되어야 품질 높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하다. 높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편 서비스센터 이듯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저희 국제우편물류센터는 동북아시아의 허브(Hub)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에 맞게 특송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내부 물류처리 기계시설은 향후 10년 이상의 미래 수요를 예측해 건설되었으며 우편물 처리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최첨단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탑재하고 시간당 최대 10,800개의 화물을 처리 할 수 있는 Tilt Tray 타입의 우편물자동분류기(IPSM)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안전사고는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장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사원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하고 나아가 사회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특히 종사원의 편안한 휴식을 돕기 위해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각 설비는 모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생산성 최우선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원 안전은 물론 우편물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 중 욱 국제우편물류센터장

